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small>뿐입니다</small>
		배포일자	2023년 4월 30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도로과	담 당 자	• 도로정책팀장 • 담당자 • 담당자	김윤도 ☎440-3771 박주열 ☎440-3772 방제웅 ☎440-377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22년만에 광역시도 노선 전면 재정비
 - 민선8기 공약·대통령 지역공약 실현, 접경·도서지역 정주생활여건 개선 기대 -
 - 각종 개발사업(IFEZ, 택지, 산단, 항만)과 신도시와 원도심 연계 강화 -

인천시가 22년만에 강화와 용진을 주축으로 하는 광역시도 노선을 전면 재정비해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여건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광역시도 노선을 재정비해 5월 1일 노선의 지정(폐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광역시도와 군도·구도가 있는데, 그중 광역시도는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 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이번 광역시도 노선 정비는 민선8기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토대를 마련하고,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및 접경·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생활여건 개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개발계획(송도, 청라, 영종), 택지개발, 산업단지, 항만건설, 각종 개발사업과 상위계획 등으로 인한 지역의 여건 변화** 등을 위한 것

이다.

* 프로젝트 [전략8] 바다로 확장하는 인천(섬~섬 간 연결망 확보로 접근성 개선)

** '01년 노선 지정(市 전역) 후 각종 개발사업·상위계획 등으로 인한 지역의
여건 변화 반영

이번 광역시도 노선의 지정(폐지) 변경은 2001년 최초로 시 전역에 대한 광역시도 노선 지정 이후, 22년 만이다. 시가 관리하는 광역시도는 당초 122개 노선 총 826km에서, 68개 노선 총 891km로 노선을 통합 및 체계화 했고 관리할 도로는 65km 늘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주요 노선은 주민 숙원 사업 및 장래 교통 수요 등을 고려한 영종~강화선, 장봉~신도선, 하점~강화선(구.국도48호선), 혼잡·광역도로계획 구간 등 8개 노선 57.4km다.

▲ 영종~강화선(제73호선, 14.6km)은 대통령 및 시장 공약사항인 영종도(인천국제공항)와 강화군(길상면)을 잇는 평화도로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 시 핵심 기반 시설 역할은 물론 장래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의 남북과 동서축 단절구간 연결로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 장봉~신도선(제68호선, 15.9km)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행정안전부, 2011.~2030.)에 따라 2025년말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평화도로에 이어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신도·시도·모도(삼형제섬) 섬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당초 군도(옹진군)를 광역시도로 승격함으로써 접경·도서지역의 교통 편의 지원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이번 광역시도 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건설과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광역시도가 국가도로망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로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광역시 노선 지정 총괄도

